

최석기, 『한국경학의 연구 시각』 서평

이영호*

I

최석기 경상대 한문학과 명예교수(이하 필자라 칭하기도 함)의 『한국경학의 연구 시각』(보고사, 2020)은 필자 개인에게 있어서, 혹은 한국경학 연구사에 있어서 공히 유의미한 책이라 할 수 있다. 서평의 서두를 이렇게 시작하면 이 책이 가지는 의미를 두 방향에서 조망해야 할 것이다. 최석기 교수 본인의 경학연구사와 학계의 한국경학 연구사에서 말이다. 그런데 이 두 방향은 떨어질 수 없을 만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말은 최석기 교수 개인이 가지는 한국경학에 대한 연구가 곧 한국경학 연구사에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뜻이다. 이 책의 필자가 들으면 손사래를 칠 수도 있겠지만, 좀 지나치게 말하자면 최석기 교수 개인의 경학 연구사가 바로 한국경학 연구사의 핵심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독보적이라는 의미이다.

해방 이후, 한국경학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이른 시기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연구의 양적 성과와 질적 깊이를 보자면 미흡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경학 연구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였기 때문

*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교수

에 그 연구의 양과 질을 거의 따질 수 없을 지경이었다. 단적으로 1958년에서 2003년에 이르기까지 거의 45년 동안 한국경학에 관한 연구서적과 논문의 숫자는 315편에 불과하였다.(『한국경학의 연구 시각』, 「제2장 한국경학 연구의 회고와 전망」, 101~121면 참조) 1년에 10편의 논문과 저술도 나오지 않은 것이었다. 그나마 1990년대 이후로 한국 경학에 관한 논저들이 어느 정도 산출되었다. 이렇게 양적으로 극히 적은 가운데 경학 연구를 건인할 글들을 찾기도 어려웠다.

이 상황을 두고 1993년 성균관대 한문학과(동양고전학 전공)에서 「성호 이익의 시경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최석기 교수는 “당시 경학을 전공하는 학자는 거의 없었다.”라고 술회하였다.(『한국경학의 연구 시각』, 「책머리에」, 5면) 이런 상황에서 그는 한국 경학에 관한 많은 논저를 넘으로써 일단 양적으로 압도적 연구우위를 점하였다. 더하여 자신의 경학연구를 관통하는 하나의 담론을 창출했다. 이에 최석기 교수의 한국경학 연구의 업적과 그 의미를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II

최석기 교수는 30여년의 교수생활을 마치고서, 자신의 연구를 결산하는 책 3권을 동시에 출간하였다. 이 책은 그 중의 하나로 그 서문에 자신의 연구역정을 3단계로 정리하였다.

1단계는 『시경』연구이다. 최교수는 한문학과에서 수학한 관계로 문학을 기본으로 하였기에 경학연구도 문학과 가까운 『시경』을 선택하였다고 하였다. 이후 성호 이익의 시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이래, 권근

에서 윤희에 이르기까지 조선학자들의 시경학을 연구하였다.

2단계는 조선시대 『대학』과 『중용』 주석에 관한 연구였다. 최교수는 대학에 재직한 이래 조선 학자들의 『대학』과 『중용』 주석에 조선경학의 핵심이 있다고 확신하였다. 이에 20년간 시경학에서 學庸學으로 전공이 바뀔 정도로 연구에 매진하였다. 그 결과 한국의 학용학에 관한 저서 3권을 출간하기도 하였다.

한편 3단계는 앞서 2단계와 시간적으로 겹쳐서 그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이는 다분히 최교수가 재직하고 있는 학교의 지리적 요인과 영향관계가 깊다. 바로 남명학과 지리산학에 관한 연구이다. 주지하다시피 최교수는 1989년에 경상대 한문학과 교수로 임용되어 2020년에 정년을 맞이하였다. 대부분의 지방대학에 근무하는 교수는 지방학을 도외시킬 수 없는데, 최교수도 또한 지리산과 그 일대에서 활동한 명유인 남명 조식에 대하여 상당한 연구성과를 저서로 펴내었다.

이 책은 필자가 2, 3단계의 연구업적을 산출하는 기간에 집필한 논문의 모음집인데, 주로 한국경학 연구의 문제점과 방향성, 그리고 구체적인 연구 등을 담고 있다. 그의 문제의식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학계가 특정 경학가(예컨대 정약용)에 너무 편중되어 연구를 진행한다는 점이며, 둘째는 종래 경학연구가 실학연구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어 경학연구의 독자적인 시각을 마련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한국경학의 연구 시각』, 「책머리에」, 6~7면) 이런 문제점을 자각한 필자는 거의 20여 년에 걸쳐 성실하게 연구하여 그 답을 제출하였다.

먼저 한국경학 연구가 특정경학자, 특히 정약용에 편중되어 있는 현상에 대하여, 최교수는 “연구가 이처럼 특정 인물에만 치중하다 보니, 한국경학 연구에서 정약용 이외의 경학가에 대해서는 별 관심조차 갖지 않는 경향까지 나타나는 현상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약용의 설이 국

제적인 수준에 도달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것만을 가지고 자꾸 강조하게 되면, 결국에는 또 다른 교조적 이념으로 변하고 말 것이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경학가의 발굴을 강조하였다.(『한국경학의 연구 시각』, 「제2장 한국경학연구의 회고와 전망」, 91면) 자신의 이러한 주장에 걸맞게 필자는 崔有海(1588~ 1641), 崔象龍(1786~1849)을 비롯한 새로운 경학자의 발굴에 힘을 쏟았다. 이는 정약용으로 편증된 한국경학 연구의 시야를 넓혀주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최교수는 종래 실학연구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경학연구의 폐단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경학가의 설을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의 경학사상을 ‘반주자학’, ‘탈주자학’, ‘탈성리학’ 등으로 성급히 결론지으려 하였다는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 경학연구는 실학연구의 연장선상에서 시작되었다. 실학연구의 시각을 그대로 답습하고 말았다. 그리하여 조선시대 지배이념이었던 주자학적 사유의 틀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모색을 한 경우에는, 그것의 실체를 구명하기에 앞서 몇 가지 다른 점만 가지고 ‘반주자학’, ‘탈주자학’, ‘탈성리학’ 등으로 그 성격을 규정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실학자들은 당대 학문의 폐단을 비판한 것이지, 성리학 자체를 비판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 따라서 실학자들을 탈성리학자로 보는 것은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 주자와 다른 설을 주장한 학자라고 하여, 주자학에 반대했다고 보는 시각은 분명 문제가 있다. 오히려 그들은 누구보다도 주자를 존중하고 주자학을 위대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가 허다하다. 다만 그들은 후학의 입장에서 주자학을 묵수(墨守)하는 것은 진정한 학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주자학을 계승 발전시키는 것을 자신들의 임무로 생각한다. …… 이런 사유를 하고 있던 학자들을 ‘주자학에 반대하는 사람’이라고 논평하는 것은 엄밀하게 말해 선인에 대한 모독이다. 그래서 필자는 이런 일군의 학자들을 묵수적 관점이 아닌 진보적 관점을 가진 학자로, 주자학을 맹신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

적으로 수용하며 계승 발전적 인식을 한 학자로 파악하였다.”(『한국경학의 연구 시각』, 「제2장 한국경학연구의 회고와 전망」, 92~103면)

최석기 교수는 자신의 이러한 관점을 연구로 관철하여 한국경학의 새로운 면모를 밝혀내었다. 그것은 바로 조선후기 경학의 양상을 설명하는 방식에서 드러났다. 최교수는 종래 조선후기 경학의 양상을 주자학과와 탈(반)주자학과의 경학으로 양분하는 관점을 비판하고, 새롭게 조선후기 경학의 양상을 구분하였다. 그에 의하면 조선후기 경학은, ‘절대존신주자주의 경학’과 ‘상대존신주자주의 경학’으로 양분된다. 종래의 구분대로 하자면, 절대존신주자주의 경학은 주자학과 경학에 상대존신주자주의 경학은 실학과 경학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최교수는 종래 실학과 경학을 주자학과 경학의 대척점에 서 있는 것으로 파악하는 관점을 배척하고, 실제 경학자료 분석에 의거하여 그 양상을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즉 그에 의하면 조선후기 상대존신주자주의 경학은, ①朱註(四書集註)를 저본으로 한 의리발명, ②古經을 저본으로 한 의리발명, ③한학과 송학을 겸취하는 관점 등의 다양한 면모를 지니고 있었다. ①에 속하는 학자로는 趙翼, 趙綱, 丁時翰, 南夏正, 崔攸之, 朴世堂, 李瀾 등이고, ②에는 崔有海, 尹鏞, 鄭齊斗, 愼後聃, 李秉休, 丁若鏞, 沈大允 등을 들었고, ③에 속하는 학자로는 正祖, 成海應, 洪奭周 등을 거론하였다.(『한국경학의 연구 시각』, 「제1장 조선시대 경학의 관점과 연변」 참조)

위의 분류를 보면, 종래 실학과 경학이라 하여 뭉뚱그려 한 범주에 넣었던 학자들이 다양하게 분화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필자의 이러한 분류는 단순하게 그들의 경학이 가지는 일면만을 지적하여 세운 체계가 아니다. 최교수의 경학연구에서 가장 빛나는 지점은 조선후기 경학의 면모

를 새롭게 밝힘에 있어서, 그 연구의 바탕이 광범위하고도 정교한 원전 독해에 있다는 점이다.

III

일찍이 최석기 교수는 기왕의 경학연구에 대하여, “경학연구는 전대의 설과 비교하여 축조심하듯이 분석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 한 두 군데 문제가 됴직한 부분만 적출하여 논의하면, 전체적인 성향을 파악할 수 없다. 이런 관점에서 기왕의 연구는 상당 부분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 논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라고 비판하였다.(『한국경학의 연구 시각』, 「제2장 한국경학연구의 회고와 전망」, 95면)

실로 최석기 교수의 조선후기 경학의 다채로운 양상에 대한 연구는 당대의 경학자료에 대한 축조분석을 통하여 귀납적으로 이룩해낸 성과이다. 이는 1960년대 이후 사학과 문학 분야에서 이룩한 실학에 의거하여 조선후기 경학의 양상을 읽어내고자 하는 연구와 결을 달리한다. 최교수는 경학자료에 나아가서 이를 광범위하고도 정밀하게 읽고서 그 결과를 토대로 자신의 이론을 구축한 것이다. 그러니까 위의 필자의 비판은 단순히 비판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수많은 경학자료의 탐독과 이를 토대로 한 논문과 저작의 기초위에 하나의 이론으로 성립된 것이다. 최교수의 『한국경학의 연구 시각』의 목차를 보면, 이 점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이 책은 모두 10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목차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제1장 조선시대 경학의 관점과 연변 / 제2장 한국경학 연구의 회고와 전망 / 제3장 한국경학의 전개와 특징 / 제4장 『대학』 해석의 연구

현황과 향방 / 제5장 조선시대 『중용』 해석의 양상과 특징 / 제6장 조선전기 경서해석과 이황, 조식의 경학 / 제7장 조선후기 영남의 경학연구와 소통의 모색 / 제8장 백호 윤희의 경학관 / 제9장 18세기 학술동향과 이익의 경학 / 제10장 성호 이익의 『대학』, 『중용』 해석

이 책의 1장에서 3장까지는 한국경학의 전개 양상과 연구사의 회고, 그리고 한국경학 연구가 지향해야 될 점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이른바 한국경학 연구에 관한 총론인 셈이다. 이 총론에서 필자는 본인이 주장하는 한국경학의 연구방법과 그 방법론에 의거하여 조선후기 경학의 양상을 새롭게 규명하였다. 연구방법의 핵심은 경학자료의 축조심 의(광범위하고도 정밀한 독해)이며, 새롭게 규명된 조선후기 경학의 양상은 기왕의 단선적 실학 논의에서 탈피하였다.

한편 이 책의 4장에서 10장까지는 총론에서 논의된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조선경학의 면모를 새롭게 밝힌 각론이다. 그 각론은 경전으로는 『대학』과 『중용』에 치중되어 있고, 인물로는 조선전기 이황과 조식으로 부터, 조선중기 윤희를 거쳐 조선후기 영남의 경학자들과 성호 이익의 경전해석에 대한 탐구로 이루어져 있다. 각론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원전자료에 대한 철저한 축조 분석의 면모이다. 실상 이는 최석기 교수의 연구에서 단연 돋보이는 부분이다. 때로는 원전 자료의 축조 분석이 지나쳐서 지루하게 여겨질 정도이다. 그러나 이는 바로 학문하는 올바른 자세라는 점에서 후학들의 귀감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의 각론에서 기왕의 실학과 경학의 범주에 넣은 윤희와 이익의 경학에 대하여 필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윤희가 주자의 설에 반대한 것도 아니고, 주자학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유학의 체계를 세운 것도 아니다. 다만 주자학적 범주에 국한하여

경전을 해석하지 않고 본지를 탐구하려 하였고, 그러다 보니 주자의 설과 다른 이설을 편 것일 뿐이다. 또한 그런 가운데 당시 학풍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친(事親)과 사천(事天)의 도를 새롭게 강조한 것이다. 이런 시간적 공간적 특수성이 있는 것을 무시하고 주자학과 다른 점만을 들어 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때문에 윤희의 사상을 ‘반주자학’, ‘탈주자학’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한국경학의 연구 시각』, 「제8장 백호 윤희의 경학관」, 353~355면)

“이익은 주자의 불구기(不苟棄), 불구유(不苟留), 불구신(不苟新)의 해석태도를 수용하여 전대의 여러 설을 모아 분간하고 변별하였다. 이런 그의 해석태도에 의해, 그의 설에는 전대의 설을 없애지 않고 수용한 것도 있고, 전대의 설을 따르지 않고 새로운 설을 제기한 것도 있다. 이익은 이런 태도로 주자의 설을 근거로 하여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미비한 점은 보완하고, 잘못된 점은 지적하면서 독자적인 해석을 한 것이다.”(『한국경학의 연구 시각』, 「제10장 성호 이익의 『대학』, 『중용』 해석」, 441면)

윤희와 이익의 경학에 관한 최석기 교수의 이러한 평가는 종래 실학적 경학이라 하여 반(탈)주자학으로 이들의 경학을 규정하려는 시도와 상충된다. 그렇다고 이 두 경학자를 두고 주자학을 일방적으로 계승하였다고도 하지 않는다. 그들의 경학에 내재된 주자학적 요소와 새로운 면모를 균형 있게 제시하였으며, 그 주자학적 면모의 약여함을 고려하여 ‘상대존신주자주의 경학’이라 하였다. 이는 어찌 보면 필자의 학문적 초점이 실학에서 주자학으로 옮겨 간 듯한 느낌도 든다. 다음은 이런 관점을 절실하게 표현한 최석기 교수의 언급이다.

“우리나라 경학연구는 반주자학이나 탈주자학에 너무 민감한 반응을 보였고, 그것만이 의미 있는 것 인양 강조하였다. 여기에는 조선시대 성리학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인식이 개입되어 있다. 이는 성리학을

올바로 계승하지 못한 무지의 상태에다, 조선시대 성리학자들의 부정적인 점만을 주목한 소치이다.

성리학에는 현대 학문에서 찾을 수 없는 소중한 가치들이 들어 있다. 이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수백 년 동안 동아시아 전역에 널리 유행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에 반대한 것이 과연 그렇게 의미 있는 것인가? 문제는 주자학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당시 학자들이 주자의 설만을 맹종하며 획일주의로 나아가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니까, 그런 교조적인 사유체계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사고로 진정한 학문을 하자는 것이다. 이를 두고 반주자학이니, 탈주자학이니 하는 것은 너무 극단적인 주장이라 아니할 수 없다.

21세기 경학연구는 이런 고정된 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오늘날과 같은 학문체계에서는 오히려 성리학적 요소가 절실히 요구된다. 즉 인간의 도덕성을 확립하고 인간다운 길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성리학의 장점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한국경학의 연구 시각』, 「제2장 한국경학연구의 회고와 전망」, 96면)

나는 이 글을 읽으면서 작년에 정년을 한 최석기 교수의 다음 연구의 향방을 어찌면 찾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모쪼록 건강을 잘 유지하여서 다시 한 번 후학에게 이정표가 될 연구가 이어졌으면 한다. 이 말이 최석기 교수님에게 부담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이 글을 마친다.

